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9월 6일(금)

(음력 8월8일)

Пятница

6 сентября 2019г.

№ 35(11685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월 4-8일 사할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사할린주가 '극동 거리' 사할린 부스에서 다양한 열매들이 풍성한 섬지역 상품을 소개한다. (주정부 홍보실 제공)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남·북·러 협력 세미나 무산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4일부터 제5차 동방경제포럼이 시작됐다. 사할간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은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프로그램으로, 미국과 유럽의 대러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단장으로 103명의 대표단이 참석하고, 북한은 리룡남 내각 부총리가 모두 7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포럼에 함께 한다. 북한은 단장 위상을 기존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처음 격상시켜 남북한이 모두 부총리급이 이번 포럼에 참여하게 됐다.

한국은 당초 이날 오전 러시아와 북한 대표단이 함께하는 '남·북·러 3각 협력 세미나'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주최 측이 대표단 일정 문제를 이유로 행사를 취소했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남북 관계 경색 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해 동방경제포럼에서는 북한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러 협력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은 이 밖에 한·러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러시아와의 별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한편 이번 포럼은 세계 50여개국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하여 ▲극동과 아태지역: 협력 가능성의 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해법 등 4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출처: 서울신문]

주 정부 8월간 사업 결과

이번 주초에 사할린주 정부는 8개월간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그 동안 주지사 권한 대행의 주도로 시행된 새로운 사회적 지원의 11개 조치를 언급했다. 교통세 인하, 최저 임금 인상 결정, 아에로플로트가 사할린에서 다시 운항, 새로운 국내 항공 노선 운항이 개시, 주택 건설 속도 가속화, 의료 혁신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

"우리는 사할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에 있어 개혁을 통해 이 목적을 성취해 나갈 것이다." 라고 리마렌코 주지사 대행이 단호히 말했다.

올해 도입된 지원 조치는 주로 어린이와 노인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할린주에서 빈곤 지표는 9.6%에서 6.3%로 감소되었고, 연금도 추가 지원되며, 노인들을 위한 <사할린 주민의 복지카드>를 도입했다. 이 카드로 현재 약국과 사회적 장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분야에서 최저 연금을 15000루블리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5월부터 응급전화 1-300 핫라인으로 전문의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무료 종합검진으로 초기 암을 비롯한 큰 병의 조기 단계를 발견하여 신속한 치료의 길을 열도록 했다.

교통 분야와 관련해 주내 항공료는 저렴해졌고 단일되었다. 헬리콥터 운항으로

는 쿠나쉬르, 쉬코탄과 이투루프행이 가능해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노글리키, 유즈노사할린스크-샤호초르스크 운항도 재개되었고 6월부터는 유즈노사할린스크-블라고웨렌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콤소몰스크-나-아무레, 유즈노사할린스크-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 간 운항이 시작되었다. 10월 27일부터 사할린에 돌아오게 된 아에로플로트 항공에 모스크바행 승객 수는 거의 2배 증가될 것으로 예측한다. 주예산 지원으로 학생과 노인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아에로플로트 항공권 구입이 가능하다.

2020년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오하간 도로가 연방 도로로 이전된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신속하게 아스팔트 도로 포장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지방예산으로 주 도로 및 지방 간선도로 수리 및 개건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세도 1/3배 감소된다.

이러한 조치들에 주두마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할린주 정부는 <가스프롬>회사와 가스화 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어 홈스크, 스미르니 및 토마리 구역 주민들에게 계획보다 더 일찍이 환경 친화적인 연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로나이스크에 천연액화가스 공장 건설도 협약에 포함되어 있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82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단신

사할린주, 동방경제포럼에서 여러 협약 체결

9월 4-8일 사할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 캠퍼스(루스키 섬)에서 개최된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사할린주가 '극동 거리' 사할린 부스에서 다양한 열매들이 풍성한 섬지역 상품을 소개한다.

포럼에 참가한 사할린주 왈레리 리마렌코 지사 대행은 첫날에만 8개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다. 그중 교육, 관광, 비즈니스 등 분야와 관련 프로젝트들이다. 그중 사할린은 연해주, 캄차트카, 추코트카 주와 함께 크루즈 관광산업을 개발하기로 하고 그외 에너지, 주택건설 등등에 관한 협정도 체결했다.

사할린주, 연금 인상

8월 말 주 정부는 <사할린주 주민 사회적 지원>국가프로그램 수정에 따라 일하지 않는 연금 수급자들의 최저 연금을 12333루블리에서 15000루블리로 인상한다고 전했다.

9월 3일에 주 정부는 모든 사할린 연금 수급자(163 068명)들에게 월 1000루블리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여 사할린주 연금 수급자 추가 지원으로 2019년(4개월)에는 652 272 000루블리, 2020년에는 1 956 816 000루블리, 합해서 총 26억 루블리가 지급될 전망이다. 사할린의 연금 수급자들은 9월부터 이 추가 연금을 받게 된다고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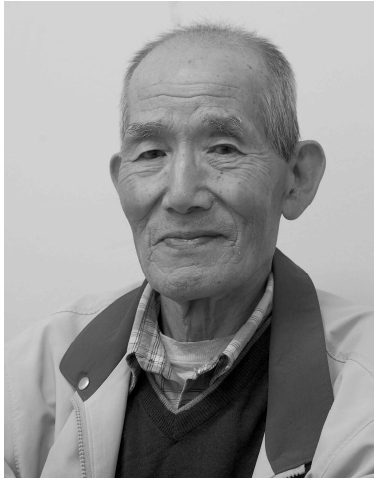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 5년간 직무 종결

지난 4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시장으로서 근무한 5년간 업무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선출되었을 때 했던 약속과 시민들에게 받은 제안 목록 중 97%를 거의 이루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들에게 받은 제안들은 지방자치체의 여러 프로그램으로 포함해 이행했다. 물론 현재까지 미완수된 부분도 있지만 이미 해결책을 시행하는 중이라 아직 종결을 보지 못했다. 한편 아직까지 도시에 여러 문제(도로 아스팔트포장 50%만 돼 있음 등등)들이 있다는 것을 나드사진은 부정하지 않았다.

사할린 청소년 음악가, 서울에서 연주

9월 5일 사할린 청소년 교향오케스트라가 합동 연주차 한국으로 떠났다. 사할린과 한국 청소년 음악가들이 한국 마사회와의 협정에 따라 이미 몇년간 음악 교류로 서로 사할린과 한국을 오가며 합동 연주회를 열고 있다. 2019년5월에는 한국 농어촌 희망 청소년(KIDO) 오케스트라가 사할린을 다녀갔고, 9월에는 사할린 각지에서 선발된 청소년 오케스트라 41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4일간 빽빽한 일정에 따라 연습에 돌입하여 9월 8일(일) 인천에서 진행될 한·러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동연주를 준비하고 있다.



보쉬냐코워 한인 역사의 산 증인이자, 보전자이신 조영제 할아버지

필자는 여러 사정으로 먼 지방을 자주 찾지 못했다. 올해 정월에 얘기를 많이 들었던 우글레고르스크구역 보쉬냐코워 마을에 계시는 조영제(1932년생)옹을 찾아 뵈 수 있었지만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 아쉽게도 따로 인터뷰할 기회가 없었다.

조영제 할아버님께서 이번 여름에 아드님 댁에 잠깐 다녀가신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문사 측은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어르신은 기억력도 아주 좋으셨고 얘기도 재미있게 해주셨다.

조영제 옹이 사할린에 오게 된 이유는 대다수의 한인들의 얘기와 비슷하다.

1941년 조영제 옹의 부친 조오출 씨는 강제모집 되어 1942년 모집으로 온 사람들을 따라온 가족이 사할린으로 오게 됐다. 그 당시 조영제 씨는 10살이었고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장남으로서 가라후토에 오게 되었다. 이후 사할린에서 여동생 셋이 더 생겼고 부친은 처음부터 보쉬냐코워 탄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44년 7월에 구슈로 이종징용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아버지가 일본으로 모집돼 떠나갈 때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지 일본 간 지 석 달 만에 김성술 씨와 우리 아버지하고 또 한 분이 즉, 세 사람이 사할린에 되돌아와 카와카미(시네고르스크)탄광에서 1년간 일하셨죠. 1945년

10월 말에 아버지가 집을 찾아 돌아오셨습니다."라고 조영제 옹은 부친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들어보니 이종징용이 아니라 삼중징용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05년생인 부친은 나름대로 장수한 편이어서 1981년에 돌아가셨다.

"아버지에게는 어느 정도 효도를 했으니 아버지는 나를 원망하지 않을걸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오늘날까지 안 풀리는 것은, 어머니가 1963년도에 59세로 돌아가셨는데 맘이로 제대로 효도를 못 해드렸던 게, 그것이 원통합니다. 아버지는 고기도 드시고 여러가지를 누리셨는데 어머니는 고생도 많이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지 못했거든요."

비탄스런 조영제 어르신의 표정이 잠시 후 조금 진정되었다. 이종징용으로 떠가기 전에 보쉬냐코워에는 가족이 있는 분들 80가구 정도, 합숙하는 독신자들은 150여 명이 살고 있었다고 했다.

조 할아버님에 따르면 보쉬냐코워에서 많은 분들이 이종징용을 당했는데 당시 일본에서 8명 정도만이 사할린으로 되돌아왔다. 일부는 일본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이를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갔고 일부는 사할린에 남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사할린으로 돌아갈 길을 찾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돌아오지 못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한다.

조 할아버님은 자신의 장인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규슈에 이종징용된 장인 어른인 한후봉 씨는 사할린에 남겨둔 가족을 찾기 위해 규슈에서 훗카이도를 찾아 하코다테 항구에서 작은 배를 타고 사할린까지 왔다고 한다. 돌아가야 할 먼 길이라 먹을 것도 준비를 해야 했는데 메주콩 한 말을 사서 삶아 올려 불에 볶아 먹어가며 길에

올랐다고 했다. 이 콩만으로 배를 채우며 한 달 이상이나 걸려 사할린의 집까지 갔다고 했다. 코르사코브에 도착해서 보쉬냐코워 소식을 알아봤더니 모두 '모른다.' 하고 김천배란 사람하고 코르사코브에서 출발하여 산길로 집까지 밤이 부르도록 낮을 걸어서 일리인스크 마을까지 갔다. 거기에 도착해서도 보쉬냐코워 마을과 사람들에게 대한 소식은 누구도 몰랐다. 우글레고르스크, 레소고르스크까지 가서야 보쉬냐코워 마을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야 안심이 되었다고. 보쉬냐코워 마을에 도착해 살던 집 마당에 다다르자 놀던 딸이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때가 1945년 10월이었다.

조영제 할아버님은 보쉬냐코워 한인 역사 보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1950년대부터 한인 사망장부도 갖고 있다.

1940년대 보쉬냐코워에 사는 한인들 인원수도 잘 알고 있었다.

대다수가 이종징용당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 6-8년 남편들을 기다리는 아내들이 포로나이스크, 마카로브, 레오니도워 등지에서 독신 남성이 많이 사는 곳으로 이주해 재혼했다는 얘기도 했다.

조 할아버님은 1945년 8월에 피난했던 당시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러시아 군인들이 보쉬냐코워 쪽으로 항공기에서 폭탄을 두 개를 터뜨리자 이곳에 사는 500여 명의 일본인들과 한인들이 타코베야 탄광 바라크 쪽으로 피난했었다고 한다. 그곳으로 피신해 거의 일주일일을 있었는데 한인들은 좀 깊은 곳으로 가서 숨었고 일본인들은 입구 쪽에 있었다고 했다. 어느 날 동포들이 존경하는 옴 선생에게 친한 일본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오늘 빨리 이

곳을 피해!'라는 언질을 주었다고 한다. '중앙 사령부에서 한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옴 선생은 피신한 사람들과 함께 남기로 했다. 그때 다행히도 이날 저녁 무렵 바다로부터 소련 군함이 들어왔다고 한다.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해방의 순간이었다고 했다.

조영제 할아버님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보쉬냐코워 조선학교 4년제, 켈놉스코에 학교 7년제를 졸업하고 나서 보쉬냐코워 탄광에서 일을 시작했다. 여러여리한 젊은이로서 전기와 기계기술을 익히는 데는 참 빨랐다고 한다. 13년간 전기부에서 일하다가 지도부에서 교육을 시키고자 조 할아버님을 사흐초르스크 전문학교로 보냈다고 했다. 러시아어가 많이 서툴러 그는 1년간 교육기간에 12개 과목의 시험을 치렀는데 모두 4점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마음이 뿌듯했다고 한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그후 탄광 굴에 내려가 콤파이너 기계정비공을 하게 되었고 머리도 비상하게 잘 돌아가 일도 잘 해냈다고 했다. 수리 요청이 그에게 많이 쏟아졌다. 그렇지만 표창장 하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상급도 받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한다. 이유는 처음엔 무국적자였기 때문이고, 다음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선전에 넘어온 아버지가 몰래 북조선 국적 취득, 한국으로 갈수 있다는 걸 알고)이어서, 또다시 무국적자로... 비로소 1973년이 되어서야 소련 국적 지원을 했는데 처음엔 거절을 당했고, 두 번째 할 때는 탄부로 소련 노동영웅이 된 동료의 추천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자 조금씩 혜택을 받게 되었다. 명예탄부로도 승격되었다.

50년대부터는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광복절 행사, 운동회, 공

연 등 몇 년간에 걸쳐 대회들을 조직했다. 그래서 그럴까 조 할아버님은 가장 행복한 시절을 떠올릴 때면 "50년대"라고 한다. 젊고, 활동력도 있고 공연과 행사들을 조직하는 것이 무척 마음에 들었었다고 했다.

조 할아버님은 지금도 우글레고르스크 구역 한인 동포들 가운데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가끔 찾아오는 한국 언론인들에게 사할린의 삶과 역사를 잘 구술로 전달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할린 한인 역사를 전해줄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그분에게 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모두 기록하고 차세대에게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 할아버님 연세의 또래 분들이 보쉬냐코워에서는 조영제 내외 뿐이다.

영주귀국이 시작되자 조 할아버님도 귀국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자식을 두고 갈 수가 없었다.

1991년에 그는 한 달 동안 전 한국을 돌아다닐 기회가 주어졌다. 그때 자신의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군 풍산읍 괴동동을 찾았다고 했다. '어린 시절 거기에서 7-8년 살아왔으니 그 동안 얼마나 와보고 싶었는지?' 조 할아버님의 부친도 고향에 대한 향수로 늘 그리움에 사무쳤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말았다.

조영제 할아버님은 그가 7살 때 부친이 가르쳤던 천자문을 배우던 당시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천자문을 잘 외우지 못한다고 몇 번이나 부친의 매를 맞았으며 회상했다.

조 할아버님이 멀리 사시는 관계로서 잘 가보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이다. 우리 신문 애독자이신 조영제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잊히거나, 듣고 지나쳐서는 안 되는 기록되어야 할 역사의 한 페이지이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전통 수영대회 "사할린 '승리' 릴레이"에 2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이다

코르사코브-아니와 노선의 전통 수영대회 "사할린 '승리' 릴레이"가 8월30일에 열렸다. 올해 대회는 제 2차 세계대전 종식과 남 사할린, 쿠릴 열도의 해방을 기념하여 열린 가운데 2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였다. 이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블라고웨렌스크, 바르나울, 하바롭스크, 아니와, 코르사코브를 대표하는 선수들로서 이들 대부분은 수영하기엔 차가운 바닷물도 장애가 되지 않는 경험 많은 선수들이다.

참가자들은 첫 200미터 코스를 손에 불멸의 연대 깃발을 들고 진행하였다. 이 상징적 경주로 수영 선수들은 다시 한번 대조국전쟁의 참전용사들과 남 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군, 참전 원로들과 전사자들을 추념했다.

전체적 강도를 시험하기 위해 선수들은 아니와 해변의 약 25km 수면을 종단했다. 이 경기는 전통적 릴레이 코스 형태로 15분~ 20분마다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영 선수들은 약 8시간에 걸쳐 전체 경주 코스를 진행했다고 코르사코브 행정부가 전했다.

Traditionный заплыв "Сахалинская эстафета Победы" собрал более 20 участников

Traditionный заплыв "Сахалинская эстафета По-

беды" по маршруту Корсаков — Анива прошел 30 августа.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окончанию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освобождению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в этом году собрало более 20 участников. Э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лаговещенска, Барнаула, Хабаровска, Анивы и Корсакова. Многие из них опытные спортсмены, для которых холодная морская вода не является серьезным препятствием для плавания.

Первые 200 метров дистанции участники преодолели с флагами в руках, среди которых, в том числе, был стяг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Этим символическим жестом пловцы еще раз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все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шедших горнило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освобождавших Южный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етеранов и павших на полях сражений.

Всего решившим испытать себя на прочность пловцам предстояло преодолеть около 25 км водной глади Анивского залива. Заплыв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водится в форме эстафеты — участники сменяют друг друга через каждые 15-20 минут. На прохождение всей дистанции пловцы затратили около 8 часов, сообщает корсак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사할린주 정기 독감 백신 예방 접종 시작

사할린주에서 성인과 아동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활동이 시작되었다. 첫 약품군 '소비그립'과 '그립 폴 플러스' 백신이 사할린주에 이미 도착했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B계열과 H1N1, H3N2 바이러스의 항체균을 내포하고 있다. 주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은 모든 백신은 러시아에서 생산

되었다고 전했다. 예방 접종 실시는 우선적으로 생후 6개월부터 학교 학생들,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임산부나 60세 이상의 고령자, 만성 질환자에게 백신을 접종을 권한다고 이 기관의 전문가들이 강조했다. 신체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생산하도록 면역화가 앞서 진행되는데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에 면역체계는 독감 바이러스에 맞서 필요한 항체를 만들어내게 된다. 백신 접종은 보통 거주지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데 접종 전에 의사나 소아과 의사에게 가서 체온을 측정하고 검진을 받아야 한다.

환자에게 백신 접종 후, 30분간 보호관찰 후에 귀가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이 근무하는 근무기관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어 근무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왕진 간호사팀이 구성된다. 유치원생 경우 단체로 접종한다.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의 전문가들이 확인한 바로는 독감 예방 접종은 폐렴구균 백신과 동시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면역화가 폐렴의 확산 위험을 상당히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алась сезонная вакцинация от гриппа

Кампания по бесплатной вакцинации взрослых и детей от гриппа стартовал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вая партия препаратов «Совигрипп» и «Гриппол +» уже поступила в регион. Обе вакцины содержат антигенные штаммы вирусов H1N1, H3N2 и линии В, согласно рекомендациям ВОЗ.

(7면에 계속)

사할린에서 <에르미타쥐의 날들> 펼쳐져

9월 2일(월) - 8일(일)까지 사할린의 문화계몽 기획 <에르미타쥐의 날들>이 펼쳐지고 있다. 2일(월)에는 공식 개막식이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전시회를 위해 에르미타쥐 박물관 부관장을 비롯한 우수 전문가들이 방문하고 에르미타쥐 희귀 소장품이 사할린에 소개되었다. 전시품 중에 독특한 작품은 이반 그로즈니 황제의 천문시계이다. 이 시계는 16세기 독일의 장인 게오르기 폴과 요한 레인골드가 제작한 것으로 놀라운 정확성에 있어 남다른 희귀품이다. 이 시계는 당시 독일의 외교적 선물로 이반 황제에게 선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대행은 " 사할린 주민들에게 세계적인 러시아의 문화를 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알렉세이 복다노브 에르미타쥐 부관장은 " 에르미타쥐 작품은 무거웠지만 전체적 프로그램 진행은 그 모든 찬사 이상이였다. 러시아에서 이런 협력 전시회는 아직 없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에르미타쥐의 날들>행사는 정보 강연, 활동교실, 견학, 다양한 영화상연으로 일주일간 진행되고 있다. 향토박물관에서는 문화 분야의 직원들을 위한 교육 강연, 미술박물관에서는 에르미타쥐 전람회를 토대로한 가상현실 안경으로 작품들을 실감나게 볼 수 있다. <승리> 종합기념박물관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희귀품들이 대조국전쟁시기에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박물관들에 입장은 무료다.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문예콩쿠르

한국 첫 여행

예카테리나 코슬로바

(전호의 계속)

또한 우리는 한국 역사책 속으로 조금 뛰어들습니다. 주최자는 우리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공원 방문을 추천했습니다. 산책하는 동안 나는 한국인들이 그를 왜 그렇게 존경하는지를 알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혁으로 인해 주요 경쟁국인 북한을 압도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유네스코세계 문화유산목록에 포함된 조선시대 한국의 전통마을-하회라는 역사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하회 역사 마을에서 우리는 전설적인 가면춤 공연을 보고 나무에 우리의 열망을 남겨두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가면을 만든 주인은 나무 밑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 곳을 다니는 여행이 있었지만 우리는 여행의 끝으로 구미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주최자는 우리를 위해 한국 학생들과 함께 모임을 가진 후, 우리에게 한국어 강좌 수료증과 선물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나는 봉지만고 향으로 가져오고 그 안에 내용물을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로 갑니다. 먼저 우리는 한국국립중앙 박물관에 갔습니다. 우리는 하루종일 박물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3 시간 동안 박물관의 모든 홀을 다 구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물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념품 가게에서 자석을 사면서 계산대 앞에서 카메라를 두고 간 것입니다. 제가 1 층으로 내려갔을 때 이미 분실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힘껏 가게까지 달려갔는데, 카메라가 거기에서 없어졌습니다. '어이, 옳지, 도둑이 훔쳐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잃어버린 물건은 분실물실에 있다고 해서 찾아

가보니 다행히도 카메라가 분실물실에 보관되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한국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에버랜드였습니다. 고향에 놀이공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공원, 거대한 놀이기구 및 맛있는 간식을 먹어볼 수 있는 곳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친구들과 모든 놀이기구를 타보려고 달려갔지만, 그중 하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놀이기구는 T-Express 였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는 것도 아끼지 않고 순서를 지키면서, 3 번이나 실컷 탔습니다. 생각대로 정말 탈 가치가 있었습니다.

놀이기구를 실컷 탄 후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카페에 가서 라면을 맛보았습니다. 물론, 공원 전체를 돌아다니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나는 동물원을 구경하지 못하고, 귀여운 팬더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진을 찍고, 다른 곳에 없는 놀이기구를 타봤습니다.

한국 여행과 사할린으로 귀국이 마음에 슬펐지만 추억은 따듯했습니다. 2주 동안 매일 우리와 함께 동행 하던 한국 참석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도 슬펐습니다. 아름다운 나라를 방문 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첫 한국 여행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제 생활방식에 영향을 주게 되어 나는 언어를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어, 중국어, 한국어 3 가지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를 배우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내 생활에서 한국 문화가 완전히 없어지면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내 꿈은 한국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끝)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꽃댕강나무 / 이구락

열 살 때 울다가 안긴 옆집 누나의 젖가슴
살 냄새,
바람결에 불쑥 풍겨와
무심코 돌아보니
담장이 꽃댕강나무 달빛 아래 하얗게 모여 있다

"한국은 이제부터 펴요. 꽃댕강나무의 꽃망울들이 하얗게, 은은한 이 향을 통해 열 살 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색의 향기가 아련합니다. 왜 울고 있었는지. 그 날 밤 옆집 누나 소식은 지금도 아시는지. 스치는 바람결에 담장을 돌아보던 그날 밤 시인의 심정을 떠올리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압축되고 진실된 언어의 감각이 이렇듯 여러모로 상상력을 북돋웁니다. 실로 눈부신 서정성입니다. 그나저나 한국 나이로 열 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 아무 것도 모를 나이일 수도, 뭘 좀 아는 나이일 수도 있잖아요. 시詩라는 게 이렇듯 참 재미있습니다. "스무 살 때 울다가 안긴 옆집 누나의 젖가슴" 이러면 일단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잖아요. 분위기 업, 업! 아, 이건 아닌거죠. 죄송합니다. 그새를 못 참고 또 멀리 온 느낌이라니, 하여튼."



아베정권과 사할린 한인의 현황

전 소련-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공로, 원로 명예 교수 전학문 박사
현, (사) 국제문화공연구류회 고문

(전호의 계속)

그는 '일본이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온다.'고 강조하였다.

일본 총리를 지낸 아베의 사돈인 기시 노부스케(1896~1987)는 만주국을 건설하여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중국인과 조선인의 항일투쟁을 무력화시켰다.

현재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는 바로 아베총독의 손자이자,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다.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두 사람의 피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우리 민족의 원수의 손자이다. 현 아베 총리 행보를 보면 두 할아버지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간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군국주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경북 의성군 비안면의 용궁 전씨 집안 출신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던 나의 부모님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지주들에게 땅과 집마저 빼앗겨 빈털터리가 된 뒤, 홋카이도 구시의 탄광에서 9년 동안 채굴부로 근무하였다. 일제는 채탄작업에 대한 경험과 능력이 있고 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던 부친을 국가총동원령이 실시되기도 전인 1935년에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태평양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제철공장에 고열량 석탄을 공급하기 위해 밤에서 일하는 젊은 농부들을 갑자기 붙잡아서 트럭에 싣고 행선지도 말하지 않은 채 바로 끌고가는 비인간적이고 악의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193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할린 탄광으로 강제 동원되어 1945년까지 석탄 채굴을 위해 마소처럼 혹사를 당하며 온갖 수난과 고난을 겪으셨던 나의 부친은 이제는 수많은 한인 탄부들과 함께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1942년 토로(塔路)시에서. 왼쪽부터 백모, 친모, 숙모. 아래에 필자(초등학교 2년생)

그 당시 강제 징용으로 사할린 탄광의 광부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면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용돈 수준의 푼돈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강제로 저축하게 했다. 대표적인 것은 우편저금이다. 일제는 전쟁수행 비용으로 쓰기 위해 저금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동원 노무자들의 임금 중 30% 정도를 강제로 차감하고 노무자들은 숫자가 적힌 종이 통장만 받은 것이다.

현재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노무자들의 우편저금은 1만 6천여 명분의 1억 8,700만 엔(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4조 4천 506억 원)이라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 사할린 우편저금은 공탁금과 달리 양국 모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가입자들의 통장 원본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할린 우편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에게는 이제 한국 국적이므로 한일협정을 소급 적용하여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Об изменениях в выдаче визы F4

2 июля 2019 года в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приказ Закона 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х за рубежом были внесены измен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асширением понят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в целом до прямых потомков, теперь включаютс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осле 4го поколения. Ниже сообщаем об изменениях общей системы в отношен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сновное содержание

1. Устранение разделения по поколения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осле 4го поколения также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статус пребыван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2. Обязательнос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подтверждающих наличие (отсутствия) судимости за рубежом

Учитывая повышение осведомленности 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х, связанное с расширением границ понят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поддержку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и пр., при подаче на визу или изменении / продлении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лять справку о наличии (отсутствии) судимости (обязательный пункт),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владение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пункт по выбору).

(обязательный пункт)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наличие (отсутствия) судимости за рубежом

- (Кому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лять)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с 14-ти до 60-ти лет (включительно), имеющие иностран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 (Требования к документам, подтверждающим наличие (отсутствия) судимости) Официальный документ, **выданный МВД РФ в течение 3 месяцев**, включающий все виды преступлен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справки о наличии (отсутствии) судимости, требуется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заверения апостилем в МВД**

В случае, если лицо более 6 месяцев пребывало за рубежом, требуется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справки о наличии (отсутствии) судимости, выданной страной пребывания на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В случае, если лицо приобрело граждан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ребуется заверенная апостилем справка о наличии (отсутствии) судимости, выданная страной, гражданином которой ранее являлось лицо.

3. (пункт по выбору)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владение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Лицам, предоставившим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владение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выдается многократная виза сроком пребывания 2 года

Лицам, не предоставившим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владение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выдается многократная виза сроком пребывания 1 год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документы

- Тест н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ОPIK) выше 1-го уровня

- Диплом о завершении начального уровня 1В в центре Сечжон

4. Документы для подачи на визу для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F-4)

Документы

- Загранпаспорт (срок действия более 6 месяцев), заявление на визу, визовый сбор 120\$

- Справка о наличии (отсутствии) судимости (апостиль обязателен, должна быть выдана в течение 3х месяцев)

-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владение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только для тех, кто может подать)

-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заявителя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оригинала и копии, после заверения копии необходим апостиль)

- Официа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бывшего СССР,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прямые потом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с заявителем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смерти, свиде-

тельство о заключении брака,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д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ях,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брачных отношениях и др.)

!!! В случае, если после заключения брака была изменена фамилия,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оригинал + копию свидетельства о заключении брака.

Справка об отсутствии туберкулеза

Например,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4го поколения и позже

-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смерти, военный билет 1-го поколения (оригинал+копия или заверение копии)

-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2 - го поколения (оригинал + копия)
-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3-го поколения (оригинал+копия)
-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заявителя (оригинал+копия, после заверения копии обязательно заверение апостилем)

Требуется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документов, подтверждающих прямые потом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дтверждающих документов 1,2,3 поколений (как и ранее))

* Для проверки подлинности документов, Консул может потребова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оригинала,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может потребовать предостав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 При подаче на визу поданные документы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Дата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2 сентября 2019 года

Выставка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

14 сентября 2019 года в 17:00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состоится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

Первые упоминания о корейцах,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Сахалине, относятся еще к XIX веку. В XX веке проходил сложный процесс формирования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является значимым социальным институтом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островов, а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грают важную роль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жизни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подлинные предметы из собр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отражающие истор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жизненный уклад, традиции, обычаи, а также историю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Кроме того, посетители смогу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документами и фотографиями из фондо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группы телевидения ГТРК-Сахалин «Урималъ бансон».

В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будут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ся видеофильмы о корейских традициях, обычаях и праздниках,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рейские игры, проводиться беседы и лекции.

Выставк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15 октября.

Заказать экскурсию и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по телефону: 72-75-55; 72-46-63.

8 сентября 2019 г. – ДОСРОЧНЫЕ ВЫБОРЫ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Е ДЕЛИТСЯ!**

**ДМИТРИЙ
КОЧЕРГИН**

Дмитр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Кочергин родился 9 февраля 1970 года в «красном» регионе –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в прибрежном курортном городе Туапсе. Закончил учебу в Ростов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в 1994 году, в дальнейшем переехал в Москву, где живет и работает по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Женат, есть дочь.

С юных лет Дмитр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разделял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е идеи, поэтому выбрал для себя единственную партию, которая в полной мере отстаивает принципы социального равенства 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 КПСС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Социальн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Цель партии – превратить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в полноценное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без угнетателей и угнетенных, построить общество, где не будет нищеты и богатства, где труд будет достойно вознаграждаться, а у каждого будут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и уверенность в своем будущем.

Сейчас Дмитрий Кочергин занимает должность начальник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 Исполкоме партии, ежедневно трудится над претворением ее планов в жизнь, изменением тяжелой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стране.

На выборах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ПСС решила выставить его кандидатуру, как опытного партийца, искренне разделяющего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е воззрения и готового работать в интересах прост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Дмитр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в ходе своей кампании не устает повторять: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е делится! Ее границы и доходы должны быть неприкосновенны, а уровень жизни людей должен повышаться год от года.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4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21 июня 2012 года «О ВЫБОРАХ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ПСС

**Хватит разговоров!
Займёмся реальными делами!**

Добьёмся

- ★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на фабриках и заводах.
- ★ Появления новых колхозов и совхозов.
- ★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етских садов и современных школ.
- ★ Достойной жизни и пенсии для стариков.
- ★ Доступной и качественной медицины.

**Все богатства страны - трудовому народу!
За ленинский пролетариат!**

Дмитрий КОЧЕРГИН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Депутат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посетили острова Токто

Шесть депутатов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посетили острова Токто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потребовав от Японии отменить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поставки в РК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сырья и признать свои исторические ошибки. Такую позицию высказали член Высшего совета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Соль Хун, а также депутаты У Вон Сик, Пак Чхан Дэ, Ли Ён Дык, Сон Гым Чжэ и Ли Ён Чжу. 31 августа они прибыли на острова Токто. Они подвергли критике оргкомитет предстоящих в Токио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2020 года, который указал на своём сайте острова Токто как японскую территорию. Они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Япония это «гора, которую нужно когда-нибудь преодолеть», призвав весь народ отразить попытку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торжения Японии. Японская сторона выразила протест против действий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арламентариев.

В Сеуле собрались офицеры из 15 стран мира

Со 2 по 7 сентября ВМС РК проводят симпозиум офицеров из стран-участниц расширенной встречи министров обороны (ADMM-Plus).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29 офицеров из 15 стран. В повестку входят вопросы укрепл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еспечении мор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4 сентября участники посетили объединённую зону безопасности (JSA) в пограничном пункте Пханмунчжом, а 5-6 сентября - оперативное командование ВМС и командование подводных сил.

РК, КНР и Япония договорились разв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унчхон, китайский Янчжоу и японский Китаюсю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совместной программе обменов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культурных городо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ни станут площадкам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овместных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Об этом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30 августа в Инчхоне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в которо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Пак Ян У,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Японии Масахико Сибаяма и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туризма Китая Лю Шуган. Стороны подписали совместную декларацию об активном продолжении и наращивании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Помимо этого, стороны продолжают обсуждать вопрос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В ознаменование первой годовщины Пхеньянского саммита в ДМЗ пройдёт «Концерт мира»

9 сентября н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станции Торасан в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е состоится «Концерт мира», посвящённый первой годовщине Пхеньянского саммита лидеров Юга и Север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изма Кореи,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должно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к мирному процессу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концерт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музыканты различных стилей и направлений, будут исполняться традиционные песни и танцы, состоятся выступления пианиста Ким Чхоль Уна, бежавшего на Юг из КНДР, всемирно известного китайского виолончелиста Йо Йо Ма. На концерт приглашены северокаорейские беженцы, гости из стран, принимавших участие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а такж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В РК зафиксирован первый в этом году случай заболевания японским энцефалитом

В РК зафиксирован первый в этом году случай заболевания японским энцефалитом.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контроля и профилактики заболеваний, 29 августа в Тэгу зафиксирован случай заражения пожилой женщины. 18 августа у неё выявлены симптомы в виде высокой температуры. Она была госпитализирована, а через три дня у неё был диагностирован японский энцефалит. 29 августа диагноз был подтверждён Центром контроля и профилактики заболеваний и Институт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Уровень смертности от японского энцефалита составляет от 20 до 30%. Однако у 99% людей укус переносчика может не вызвать особых симптомов, либо просто стать причиной небольшого повышения температуры. У других недуг проявляется в виде острого энцефалита.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более 90% поражённых вирусом пришли на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40 лет. Власти призывают проявить особую осторожность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в период с сентября по ноябрь фиксируется более 90% случаев заболевания. Детям от года до 12 лет рекомендуется сделать прививку.

(РКИ)

III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провели в Холмске

III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прошёл в Холмске в последний день лета. В центральном доме культуры собрались жители и гости города.

Накануне в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Холмска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из фондов поронайск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Корея! Жизнь на Сахалине". Ведущ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вели экскурс в историю, а также в традиции, характерные для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и.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картины, документы зырянской семилетней школы, 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стюмы, веера, игрушки, сувениры, предметы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дея проведения праздника, объединяющего наро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адлежит региональной и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дея фестиваля воплотилась при участии холм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о словами приветствия к пришедшим на праздник холмчанам и гостям города обратился глава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лексей Летечин.

— Наш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чень непростой с точки зрения географии, а также количества людей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и религиозных взглядов, но это никогда не мешало быть нам дружной, единой семьёй, бережно относиться и уважать традиции и взгляды друг друга, — отметил он.

Также собравшихся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Оксана Пак, 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Наталья Пак — председатель холм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ка одни гости наслаждались концертными номерами в большом зале, другие могли найти интересное для себя занятие в фойе центральн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Стать участниками мастер-класса по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творчеству, приобрести мягкие игрушки,



сделанные руками холмских мастериц из твор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ЦДК, рассмотреть поближе выставку корейск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стюмов и предметов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По завершении большого концерта все желающие дегустировали 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рейские блюда и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кулинарном мастер-классе,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открывались секреты приготовления вкусностей, являющихся для многих сахалинцев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стола, сообщает ТРК "Холмск".

Юные музыканты Сахалина выступают в Южной Корее

Благодаря подписанному 18 января 2019г. соглашению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им областным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и Фондом "Let's Run" Ассоциации верховой езд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едполагающему регулярные двусторонние обмены творческими коллективами, с 5 по 10 сентября 2019г.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ройдут совместные репетиции и концер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дет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и молодежн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KYDO"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и доверия очень помогает молодым музыкантам укреплени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и дружественных контактов.

В мае этого года та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бывшая групп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молодых музыкантов оркестра "KYDO" совместно с сахалинским областным детским симфоническим оркестром провели два концерта в Корсакове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вот наступила пора обм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гастролы назначены на период, когда наши школьники только прибыли с летних каникул,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ий центр (директор Е. Манойленко) с 2-4 сентября организовал музыкальную сессию для ю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оркестрантов у «себя дом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течении трех дней оркестр проводил репетици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и дирижера оркестра В.Юхмановой.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проведенные репетиции очень помогут в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своих навыков и умений перед предстоящими зарубежными гастроллями.

По приезду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были подготовлены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успешных концертов совместно с местным «KYDO». Как всегда, в состав корей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KYDO" набирались музыканты с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прослушивание. С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подготовку оркестров к назначенному концерту проводил известный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музыкант и дирижер Гым Нан Се. Во всех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 в концерте примет уча-

ст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филармонически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под управлением дирижера Гым Нан Се.

В Корею будут собраны ребята - оркестранты в количестве 102 артистов. В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й период в течении трех дней со всеми юными музыкантами отдельно по партиям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артисты филарм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а после обеда сахалинский дирижер В. Юхманова и корейский дирижер Гым Нан С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с объединенными оркестрами над музыкальными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Такая схема работы дает эффективный результат в работе над «оттачиванием» музыкаль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Программа концерта уже известна. 8 сентября в Артистическом центре города Инчон открывает концерт Сахалинский детски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совместно с филармоническим оркестром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дирижера В. Юхмановой. Сахалинцы на корейской сцене будут исполнять Увертюру к опере Ж. Бизе «Кармен», Увертюру к опере Д.Россини «Севильский цирюльник», Симфонию № 9 А. Дворжака (1-я часть) и в заключение своей программы планируется исполнение знаменитой на весь мир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песни «Калинка». Во втором отделении сахалинские и корейские ребят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рейского дирижера будут исполнять Симфонию № 5 Людвиг ван Бетховена (1-я часть) и Симфонию № 4 П.И. Чайковского (4-я часть). Очень надеемся, что выступления юных музыкантов будут высоко оценены корейскими зрителями!

И, конечно, сахалинским ребятам в последующие дни после концерта будет предложена экскурс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 столице Кореи Сеул, запланировано посещение самой высокой смотровой площадки на башне «Lotte World Tower», открывшейся два года назад в Сеуле, а также ребята побывают в парке игровых аттракционов «Диснейлэнд» в самом популярном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м сеульском комплексе «Lotte World».

Пожелаем нашим юным дарованиям успешных выступлений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Ри Ок Пун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работ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 8 месяцев

За это время в области по инициативе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введены 11 новых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риняты решения снизить транспортный налог и повысить минимальные пенсии, возвращен «Аэрофлот» и запущены новые авиамаршруты, ускорены темп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запущена медицинская реформа.

— Работа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нацелена на то, чтобы сделать жизн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лучше и комфортнее. Поэтому мы взялись за выполнение конкретных задач, затрагивающих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каждого жителя. Это и повышение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семей, и медицина,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и решение транспортного вопроса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У нас есть четкая установка — мы должны улучшит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ах. Именно этой цели добиваемся, проводя реформы,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веденные в этом году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оддержку семей с детьми и жителей прекл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Показатель уровня бедности в области уже удалось снизить с 9,6 до 6,3 процента.

Чтобы закрепить тенденцию, глава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нициировал повышение минимальных пенсий. Уже в сентябре сахалинские пенсионеры получат 15 000 вместо 12 333 рублей. Серьезной мерой поддержки пожилых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стало и введение «Социальной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Обслуживание по ним ведется в аптеках и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ах.

Целый блок нововведений принят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 мая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работает горячая линия «1-300». Она позволяет жителям взять талоны к стоматологам и другим узким специалистам. Благодаря введению бесплат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и дорогостоящей диагностики легких, у ряда жителей выявлены онкозаболевания и другие серьезные болезни на начальных стадиях.

Еще одно направление, в котором произошли серьезные изменения, — транспортная сфера. В области введены единый и более низкий тариф на внутренние авиарейсы. Стоимость билетов не превышает 7 тысяч рублей в один конец для всех жителей, независимо от прописки. Впервые вертолетное сообщение соединило Кунашир, Шикотан и Итуруп, самолеты начали летать в Ноглики и Шахтерск. С июня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пустили новые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е рейсы — в Благовещенск,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и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Еще одно яркое достижение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 с 27 октября на Сахалин возвращается «Аэрофлот». За счет областной субсидии цены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будут такими же доступными, как и на рейсах «России». В результате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увеличить в два раза зимой и в полтора — летом.

С 2020 года трасс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будет передана в федераль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Это позволит заасфальтировать ее более ускоренными темпами — до 2024 года. Высвободившиеся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бюджете деньги направят не только на реконструкцию и капремонт областных и местных дорог.

По предлож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которое уже единогласно поддержала облдума, для жителей островов на треть снизят транспортный налог.

Несомненным прорывом 2019 года стало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е закрепление в новых Правилах рыболовства дл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ава граждан на любительский лов горбуш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ез путевок. Ранее участков, где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могли ловить лососевых на удочку, не имея таких документов, не было совсем.

С начала года втрое — до 4,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 увеличен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рограммы по расселению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и жилья, признанного непригодным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Впервые ремонт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идет сразу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с ПАО «Газпром» об ускорении газифик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езультате жители Холмског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и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ов прежде, чем планировалось, получат доступ к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му топливу. Совместные пла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и «Газпрома» включают такж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Поронайске комплекса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СПГ. Завод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две очереди. Первую построят в 2021-2022 годах.

74 годовщину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отпраздновали на Сахалине

2 сентябр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ялся торжественный митинг в честь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амять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почтили сотни островитян. От лиц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обравшихся поздрав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эта победа имеет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Фактически, благодаря подвигу народа-победителя образовался регион. Мы гордимся на-

шими ветеранами. Они стойко перенесли трудности 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а после строили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обравшимся напомнили, что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была самой кровопролитной в истории человечества. Она продолжалась в течение шести лет. В ней участвовали более 60 государств. Бои шли на территориях 40 стран.

— Мы завоевали эту победу. Спасибо за это ветеранам. Низкий вам поклон. Современное поколение воинов равняется на вас и также готово защищать свою Родину, — отметил командир 68-го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 Дмитрий Глушенков.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унесла жизни 60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Около двух тысяч советских солдат и офицеров погибли в боях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Имена героев увековечены на 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Сотни островитян пришли сюда, чтобы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погибших воинов. Цветы к Вечному огню возложили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е участники сражений. Так, ветеран Василий Андреев помнит события 74-летней давности, словно они произошли вчера.

— Я был матросом отряда морского десанта особого назначения. Мы открывали 50-ую параллель с пограничниками, брали первый укрепрайон, освободили поселок, который сейчас называется Бошняково. Бои были упорные, ожесточенные. Для нас Победа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 большой праздник, — вспоминает ветеран Василий Андреев.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и 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легающей к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му комплексу «Победа». Здесь развернули выставку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Также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дня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шли познавательные экскурсии, квесты,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концерты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 в 20:00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состоялся концерт оркестра «Уралбэнд»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заслуженного деятеля искусств России, полковника Александра Павлова из Екатеринбурга. Торжество завершилось красочным салютом в 22.00.

«Дни Эрмитажа» стартовали на Сахалине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культур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состоялось в музее книги А.П.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Его посетителям представили астрономические часы Ивана Грозного с небесными и земными глобусами XVI века. Посетить выставку одного шедевра ценители искусства смогут еще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В областных музеях в рамках «Дней Эрмитажа» также пройдут мастер-классы, лекции, экскурсии и показы тематических фильмов.

—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сахалинцы могли приобщаться к мировой и особенно российской культуре здесь, на островах. Поэтому рад сообщить, что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работы с одним из лучших музеев страны дали плоды, и впервые мы принимаем «Дни Эрмитажа»,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открыт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также выступил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Эрмитажа Алексей Богданов.

— Мы привезли на Сахалин наших сотрудников, которые поделятся с остров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о реставрации экспонатов, расскажем о тонкостях музейного дела. Организовать такую сложную, комплексную работу было сложно. Однако программа, которая в итоге получилась, того стоила. Ничего подобного в России еще не было, — рассказал Алексей Богданов.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месте с Алексеем Богдановым открыли выставку одного шедевра, сняв с астрономических часов защитное полотно. Их изготовили немецкие мастера Георг Ролль и Иоганн Рейнгольд. Позже хронометр был преподнесен Ивану Грозному в вид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дара. Сахалинцы — первые, кто увидел сложный технический прибор после реставрации. Ее завершили в апреле этого года и теперь часы полностью в рабочем состоянии.

— Это здорово, что мы можем, в прямом смысле, прикоснуться к шедевру, не выезжая с острова. Не у всех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отправиться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Это настоящий подарок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ценителей истории и искусства, — отметила посетительница выставки.

В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программе задействуют площадки всех областных музеев. В краеведческом — пройдут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музей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организуют виртуальные экскурсии по экспозициям Эрмитажа, а в 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обеда» расскажут об Эрмитаже в годы войны. Полное расписание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на сайте музея книги А.П.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http://chekhov-book-museum.ru/dni-ermitazha-na-sahaline/>.

Вход во все областные музеи Сахалина на «Дни Эрмитажа» станет бесплатным. Культурная программ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8 сентября.

Чтобы к прекрасному прикоснулос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островитян, в области запускают «музеемобиль».

Он будет привозить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людей из сел. Кроме того, специалисты из Эрмитажа посетят близлежащие города юга Сахалина. Также в планах организация и проведение онлайн-трансляции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музее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ые по тем или иным причинам не смогут приехать в островную столицу.

Отметим, культур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роект «Дни Эрмитажа» существует с 1990-х годов, благодаря бывшему генеральному директору учреждения Владимиру Матвееву. Он проходит не только в городах России, но и за рубежом.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ты новые школы

В первый день учебного года за парты сели более 58 тысяч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из них — более 6 тысяч первоклассники. В День знаний двери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области распахнули четыре новых объекта образования.

Новый учебный год ученики и учителя долинской школы №1 встретили в новом здании. Взамен стар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60-х годов открылась просторная и комфортная школа XXI века.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Образование»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ыло выделено около 8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и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ов.

Долинская СОШ №1 теперь располагается на внушительной площади — свыше 11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У школы три этажа, шесть блоков, отдельный — для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Здесь есть гимнастический и тренажерный залы, стадион, столовая на 422 места, современная библиотека и школьный музей, медицинский кабинет.

— Сегодня большое радостное событие. Мы все — дети, учителя, родители — очень ждали новую школу, — поделилась директор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Ирина Шабалина. — Теперь мы будем учиться и учить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чебных кабинетах — с компьютерами, интерактивными и наглядными пособиями. Предмет особой гордости — мастерские для уроков технологии. Там мальчики будут осваивать работу с металлом и деревом, а девочки — шить и готовить.

Открыт также новый корпус пушкинской гимназии №1. Здесь разместились 16 классных комнат, шесть классов для внеуро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абинеты психолога и логопеда, отдельные спальни для мальчиков и девочек. Особенность нового здания в том, что все его помещения выполняют развивающую функцию. На каждом из трех этажей созданы зоны рекреации. Любому ребенку здесь может почитать книгу, поиграть в настольные игры, изучить устройство Солнечной системы,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инетической песочницей. Также для маленьких гимназистов закупили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уроков робототехники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мастерскую мультипликации.

— Я очень хотела пойти в первый класс. Мне кажется, учиться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И школа моя понравилась, и учительница, и одноклассники. А еще к 1 сентября мне купили красивые ручки, тетрадки и пышные банты, — поделилась первоклассница Елизавета Михайлова.

Кроме тог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ис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ристройки к школе №26 и гимназии №3. Так, в новом корпусе 26 школы разместили робототехнический центр. В нем для обучения детей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оборудование от ведущих миров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Также здесь заработал мобильный компьютерный класс.

А в новом корпусе гимназии №3 открыли детский технопарк «Кванториум». Его оснастили новейшим мультимедий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 высокопроизводительными графическими станциями, интерактивными панелями, робототехническими наборами, камерами, шлемами VR, очками дополненной и смешанной реальности.

В Поронайске после двухлетнего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и масштабно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распахнула двери школа №7. Теперь в новом учебном году во все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ятия будут вестись в одну смену.

Новшество наступивше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 центры образования «Точка роста», которые открылись на базе 15 сельских школ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Современная школа». Здесь ребята могут осваивать программы цифрового, естественно-научного и гуманитарного профилей.

Сейчас на островах строится еще девять объектов образования —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Смирных, Макарове, Корсакове, селах Рейдово 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а и Кировское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Большая стройка развернулась в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е. Возводи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корпус СОШ №6, школа в селе Дальнем. К завершению ид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школы для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в Луговом.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должно начаться возведен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Ногликах и Шахтерске, а также пристроек к СОШ №19 и №30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сего до конца 2024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явится 26 новых современных школ. Это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более 6700 учебных мест и ликвидировать вторую смену.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8 сентября 2019 г. – ДОСРОЧНЫЕ ВЫБОРЫ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ДПР

НАШ КАНДИДАТ
В ГУБЕРНАТО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ЛЕЕР Дмитрий

САХАЛИН, ПРОЯВИ ХАРАКТЕР!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 2 ст 44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27 июня 2012 года
N49-30 «О выборах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Как сообщили в областном управлении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все вакцины произведен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Прививочная кампани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хватит младенцев с 6 месяцев, школьников, студенто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и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Также специалисты ведомства отмечают, что поставить вакцину желательно беременным женщинам, гражданам старше 60 лет и людям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Иммунизация проводится заблаговременно, чтобы человеческий организм успел выработать стойкость к инфекции. На это требуется около двух недель - за это время иммунная система успевает выработать необходимые антитела к вирусу гриппа.

Вакцинация обычно проводится в медици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ях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Перед прививкой необходимо пройти осмотр у терапевта (педиатра) и измерить температуру. После введения вакцины пациент около получаса находится под наблюдением, после чего может идти домой. Если у организации, где трудоустроены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есть договор с медучреждением, прививку можно сделать на месте работы. Для этого организуют выезд бригады фельдшеров. Детсадовцам прививки делают в группах.

Как уточняют специалисты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прививкой от гриппа можно поставить вакцину от пневмококковой инфекции. Эта иммунизация существенно снижает риск внебольничной пневмонии.

Сахалинец снял ролик про анивский маяк и стал призер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Ж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нстантин Ефимов попал в число призеров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аэросъемки «Взлетай и снимай!». Островитянин создал видеоролик о поездке к маяку Анива и мысу Мраморному. Мини-фильм вошел в число лучших работ,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естивале дрон-рейсинга Rostec Drone.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в трех тематических категориях — «Урбан-стайл», «Незабываемые путешествия» и «Нереальный экстрим» — объявил телеканал «Т24». Состязание любителей воздушной съемки проводится уже во второй раз: в этом году более 150 авторов прислали на суд жюри 282 работы. Материалы для видеороликов участники собирали в разных точках земного шара, от Москвы до пустыни Гоби и норвежских берегов, от Ай-Петри до Байкала,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центре телеканала.

Работы участников конкурса оценивали титул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кино- и телеиндустри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дронрейсеры и мастера коптерной съемки. Кроме призов от партнеров, комиссия присудила и спецнаграду: участник, чью работу особо отметил телеканал «Т24», поедет на полевую съемку проекта телеканала «Т24» и будет управлять дроном студии.

Южносахалинец Константин Ефимов стал третьим в номинации «Незабываемые путешествия». Его ролик, посвященный плаванию к мысу Мраморному и анивскому маяку, обошел десятки видеозаписей.

(Сахалин.ру и РИА «Сахалин»)

Сахалин 주민 아니와 등대에 관한 영상 촬영으로 국제 드론경연대회에서 수상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 콘스탄틴 에피모프가 <날아올라 촬영하라!> 전국 드론(무인 항공기)경연대회 수상자 안에 들었다. 콘스탄틴은 아니와 등대와 트라모르니곶 여행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다. 이 단편 영상은 <로스텍 드론> 드론 레이싱 국제 축제에서 추천한 우수 작품 안에 들었다.

3가지 주제별 영역의 - <세련된 스타일>, <인상 깊은 여행>, <비현실적 극한 체험> - 경연 우승자들이 선정돼 <Т24>방송에서 발표했다.

아마추어 드론 촬영 경연은 벌써 2번째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150명의 영상 작가들이 282개의 작품을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출품했다. 참가자들의 영상 자료들은 모스크바에서 고비사막까지, 아이페트르 산에서 바이칼까지 지구촌의 모습을 다양한 관점에서 수집했다고 방송국 홍보 센터에서 전했다.

대회 참가자들의 작품은 영화 및 방송산업 전문가, 전문 드론 레이서, 헬리콥터 전문 촬영기사가 심사했다. 협찬의 시상 외에도 위원회는 특별상을 제정해 수여했다.

<Т24> 방송사가 특별히 지목한 작품의 참가자들은 <Т24> 방송 자연 촬영 기획에 현장으로 가서 드론을 관리하게 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 콘스탄틴 에피모프는 <인상 깊은 여행> 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다. 그의 영상은 트라모르니곶과 아니와 등대를 향해하는 수십 개의 영상을 담았다.

세계한인차세대 대회 성황리 개막

전 세계 차세대 한인 전문가 107명이 참가하는 '2019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2일 오후 서울 JW메리어트동대문호텔에서 개막했다.

이날 손열 연세대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 '국제질서 변화 속의 한국외교와 한인네트워크의 역할'이라는 기조강연에서 "한국은 정부간 외교뿐만 아니라 해외 한인 네트워크를 적극 가동해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를 지키고 북극함으로써, 미중 사이 줄서기를 피하고 한일 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개회식에서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은 현재 동포사회는 세대교체 등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과 적응을 위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차세대 한인 리더들이 열린 사고와 전문식견으로 모국과 동포사회의 상생 발전의 길을 넓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축사에서 "한반도는 남북관계, 미중 패권전쟁, 일본의 무역 도발 등으로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4박 5일 동안 국무총리 예방, 토크콘서트, FLC세계시민포럼 등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한국의 근현대 역사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모국과 동포사회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동포 인재를 발굴하고, 모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98년부터 시행됐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